

메두사와 맞서는 방법

How to Confront a Medusa



남수현 Nam, Soohyun
 정회원, 명지대 건축대학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Architecture, Myongji University(CAMU)
 soohyunnam@mju.ac.kr

들어가며

한 달 남짓 여름 워크숍을 항상 베니스 대학과 같이 행하는 학교의 행사 때문에 베니스를 세 번이나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묘하게도 항상 홀수연도에 가게 되어 베니스 건축비엔날레를 볼 기회가 없었다. 올해 처음으로 기회를 갖게 되어 미디어테이가 한참이 지난 7월에 전시관을 방문하였다. 일반관람객 입장에서 여러 관을 둘러보면서 그 중 한국관에 대한 느낌을 전달한다 생각하며 글을 시작한다.

아라베나와 마리아 레이헤

이번 전시를 감독한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개인적으로 ‘전략가와 전문가 사이에 선 건축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빈민 주거 프로젝트 ‘좋은 집의 반쪽’이 보여주듯이 “나쁜 문제에 잘 대답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어떤 문제가 진정한 문제인지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건축의 역할과 언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시대가 왔다. 건축가는 경제, 안전, 환경 분야와 함께 작업하며, 다른 분야 전문가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디자인을 실행하여 세상이 나아지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확신한다. 세상이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듯이 보이는 이 때, 도시를 사회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무한의 자원으로 인지하는 그의 냉정한 긍정은 상당한 공감을 일으켜, 가기 전부터 기대가 컸다.

아라베나는 이번 전시의 포스터로 나스카 평원 조사를

위해 사다리 위에서 있는 마리아 레이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결핍에는 창의력으로, (과도한) 풍부함에는 적절함으로(Against scarcity: inventiveness, Against abundance: pertinence)’라고 묘사된 이 이미지를 통해 주제인 ‘전선(戰線)에서 보고하다’의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전시의 형태

비엔날레 전시의 형식은 개략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보고(report), 현상에 대한 ‘분석’(analysis. 이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여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주류이다), 건축적 제안(proposal)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인스톨레이션을



그림 1. 주제관에 전시된 마리아 레이헤의 사진



그림 2. 솔라노 베니테스의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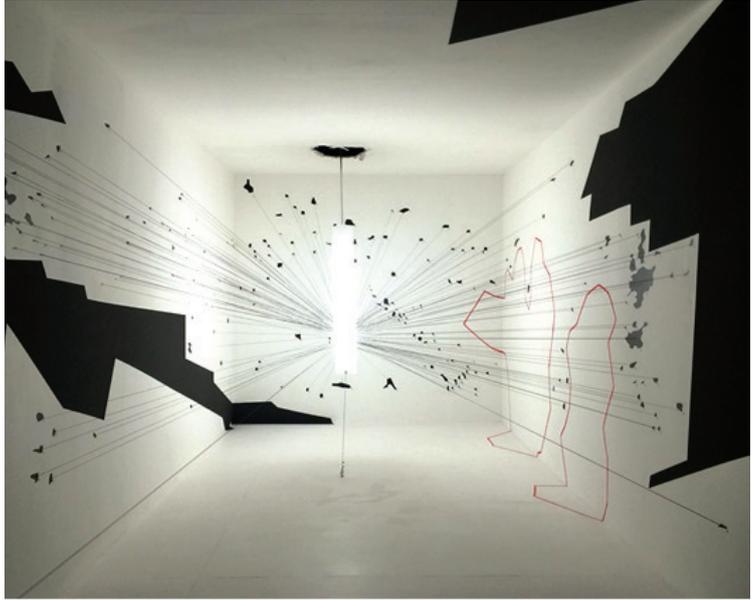


그림 3. Forensic Architecture

포함한 구체적 프로젝트의 전시이다.

국가관 황금사자상을 받은 스페인관이 상황의 보고(금융위기로 잊혀진 건물들을 재생한 사례)였다면, 참여작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건축가 솔라노 베니테스는 벽돌로만 만든 아치를 직접 주제관에 설치하였다(그림 2 참조).

이에 비해 건축적 제안을 한 여러 나라의 전시관들은 개인적으로 큰 감흥을 받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그 급박함(urgency)이 다른 전시에 비해서 생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관은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주를 이룬 전시라고 볼 수 있다. 분석에 바탕을 둔 전시관은 많지 않았다고 기억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전시관은 호주관으로 수영장의 역사를 다루었던 것이 생각난다.

전선은 어디인가?

방문객은 처음 주제관으로 향한다. 커미셔너인 아라베나가 의도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그 후 다른 전시관으로 향하며 다른 나라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서 보여줄 것인가를 궁금해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비엔날레의 전선(frontline)은 어디에 있는가?

아라베나에 있어 전선은 건축이 사회, 타분야와 만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주제를 칭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마리아 레이헤 포스터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섬세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풀어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이슈들-전쟁, 테러, 빈곤, 피난, 난민, 도시화 등-로 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일상(everydayness)과 비일상적(extra-ordinary) 상황에 대한 양 끝단으로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 3의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 처럼 뉴스화면 자료를 통해 드론의 정교한 공격이 사실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비일상의 끝이 있었다면, 다른 쪽에선 SANAA의 이누지마 섬 계획처럼 차분한 재개발안이나 리우 지아쿤(중국)의 일상을 포함한 긴 램프의 건물이 전시되고 있었다.

전선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

전선이 뚜렷하면 이에 맞서는 방식도 훨씬 더 또렷이 드러난다. 개발도상국, 강렬한 이슈가 있는 지역은 '전선'이 분명하다. 내전의 군인들을 건설자로 교육시켜 건물을 짓는 스리랑카의 밀린다 파티라자(Milinda Pathiraja)나 유사시 싸이클론에 대비한 셸터가 되는 건축을 계획하는 카셰프 차우더리(Kashef Chowdhury·URBANA) 등의



그림 4. 카세프 카우더리의 셸터건축. 평소때는 초등학교 건물이다.



그림 6. 네덜란드관 UN평화유지군 캠프 단계별 미래계획



그림 5. 안나 헤링거의 진흙건축. 진흙건축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림 7. 핀란드 난민촌 계획

작업은 건축이 무엇과 대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렇게 강력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독특한 재료를 지역 경제에 맞춰 생각한 시몬 벨레즈(Simon Velez)의 대나무 건축이나, 안나 헤링거(Anna Heringer)의 진흙 건축 또한 전선이 분명하다(그림 4, 5 참조).

반면 선진국이나, 혹은 모호한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전선’ 자체 또한 모호해진다. 뚜렷이 전선이 보이지 않을 때 - 이는 전선이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닌데 - 무엇을 향해 건축가는 대응해야 하는가? 아라베나는(손쉽게도) 전통적 건축가의 역할 변신을 요구하지만 그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가관 중 네덜란드나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 난민 캠프나 UN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슈들을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지만 건축가의 역할보다는 행정가의 역할이 더 큰 느낌의 전시거나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주제 자체 또한 ‘수입’된 느낌을

지을 수 없었다(그림 6, 7 참조).

분명히 문제는 산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이슈가 있어 전선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는 어떤 전시로 이를 전달하여야 하는가. 삶의 질은 세계상위권이면서도 만족도는 최하위인 나라, 자살률이 높은 나라, 노동 권리 보장이 낮은 나라, 체감물가가 높은 나라, 소득대비 집값이 높은 나라, 저출산의 나라 등 나열이 힘들 정도로 전선은 뿔 속 깊이 내재되어 있다. 전선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체화되어 있는 곳에서 건축이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관람객으로서 판단하기에, 한국관의 전시는 아마도 건축의 법적인 규제 및 삶의 전반적인 질을 그 상징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한다. 창의성이 개입할 부분을 불허하는 법과 사회의 분위기, 시도는 쪼그라들고 전선은 거대해지며 다층적으로 변화는 상황을 가장 극렬하게, 시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번 한국전시관이 아닐까.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와 어떻게 맞섰는가

이탈로 칼비노는 문학에서 ‘가벼움’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페르세우스의 예를 든다. 오비디우스의 시에서, 자신은 돌로 변하지 않으면서 메두사(Medusa)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페르세우스는 바람과 구름, 그리고 가장 가벼운 것들에 의존한다. 페르세우스는 간접적인 시야인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통해 메두사를 소멸시킨다. 칼비노는 이를 시인과 세계 사이 관계의 알레고리로 해석하여 글을 쓸 때 따라야 할 방식으로 인지한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자른 뒤 이후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돌조각으로 변해야 마땅한 악인에게만 보여주어 벌을 내린다. 페르세우스는 처음 거울을 이용해 물리쳤듯이 이 끔찍한 얼굴을 숨김으로서 이 마술의 주인이 된다. 페르세우스의 힘은 직접 보는 것을 거부하지만, 그가 살아야 할 현실을 거부하지는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는 그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가볍게 대처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맞는 상서로운(auspicious) 이미지로 나는 무거운 세상위로 날아오르는 시인-철학자를 생

각한다. 자신의 무게를 이겨내는 가벼움.

소음, 공격성, 높은 회전, 으르렁거림 등이 삶의 동인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이들은 죽음의 영역이다... 가벼움(lightness)은 분명치 않음이나 무게획이 아니라 정밀함(precision)과 투지(determination)를 동반한다. 폴 발레리는 작가는 깃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되고, 비행하는 새처럼 가벼워야 한다고 말한다.”¹⁾

메두사를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해석을 하면 많은 것을 시사한다. 메두사 얼굴의 수많은 뱀들(자본, 주거문제, 제도 등)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고, 모든 논의들을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끌어들이어 다른 모든 것들의 작동을 중단시킨다.

이 상황을 바로 바라보고 무겁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고, 당위성만이 존재하는 선언이 되고 만다. 한국전시관은 이런 얼어붙은 상태를 깨는 작은 망치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까치발로 그 얼음위를 뛰어다닌다.

1) Italo Calvino, Six memos for the next millennium,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그림 8.
FAR game - 한국전시관과 잘 어울린다.

한국전시관

한국전시관은 이런 다양한 전선의 내재화된 상황 속에서 건축가가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선의 직접적인 시각적 전달이 아니라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충성을 들리게 했다고 생각한다.

자본의 논리와 여기에 더해진 건축의뢰인의 다채로운 욕망 그리고 물리적인 규제인 용적률 사이에서 어떻게 건축가가 ‘실체적으로’ 작업하는지, 미세한 차이를 고민하면서 건축을 만들고 있는 전략적인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건축가가 자신의 안전을 정하고 능동적으로 작업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나, 건축가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사회적 현실의 보고와는 달리, 상충된 이슈들을 건축가가 반응하는 과정이 보여지는 복합적인 전시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동시에 FAR game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축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건축가임이 아님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전선을 인지하여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그림 8 참조).

나가며

이번 비엔날레의 전체적인 감상은 디자인의 힘을 느꼈다고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건축환경은 디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한 공식이나 당위에 의해서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형태 장르적 특성이나 미학적인 단계를 넘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건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및 실행능력을 포함하지만 이는 건축적 역량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전시관은 이런 건축가의 전략적인 능력을 집중해 보여주고 있다. 행정관으로 변한 건축가가 아닌, 건축가로서, 디자인 위에 서서 사회의 이슈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아라베나가 의도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FAR game의 제목에 사용된 영어 game의 뜻 중에는 ‘투지가 있는’이라는 뜻이 있다. 새롭고, 드물고,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game for)을 가지는 것이 중

요하다는 생각이 전시를 보며 들었다.

한국관은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전시지만 전시회의 성격상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향방이 관람객에게는 더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여 이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와 건축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은 전시의 모든 구성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감상문에서 빠져있는 중요한 부분은 한국관에서 36개의 각 건축가의 작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자들은 무엇인지 시간이 많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년 2월 한국전시를 기대한다.

추신

1. 한국관의 전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있었다면, 이 과정이 어떤 구축환경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전달이 필요한데, 그 면에서 한국관이 제시하는 4명의 미술가들의 작업은 분석이나 새로운 유형의 제시와는 결을 달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는 프랑스의 LAN(Local Architecture Network)의 작업과도 비교되는데, LAN의 작업이 도시재정비의 결과로 새롭게 나타나는 삶에 차별하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한국관은 작가적 성향의 예술가적 기술(artistry)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시간부족으로 인해 차별히 살펴보지 못한 필자의 탓일 수도 있다. 동시에 전시하기가 까다로운 한국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은 상당히 좋았다.

2. 이탈리아어 번역의 필요성: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이며 6개월 전시 중 미디어 데이가 지나고 나서 찾는 많은 이탈리아 관람객들을 수용하기에 영어 설명은 충분치 않은 듯하다. 이탈리아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전시에 확실히 많은 방문객들이 머물러 있었다.☐

필자 소개

남수현 교수는 예일건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건축사이며, A-HOUSE, Y-HOUSE, 푸르니 빌딩 등의 작업을 하였다. 저서로 『MEDIUMNESS 중형성』(2012)가 있다. <건축가 사용 매뉴얼>을 쓰고 있으며 졸업 스튜디오 프로젝트로 <조닝대안>을 계획하고 있고 결과를 출간하려 한다.